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한 해 창조

한전원자력연료(주)

희망한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우리가 있기까지 도와준 정부, 한전, 그리고 우리의 고객인 한수원, 그리고 해외 및 국내 협력 회사들에 대해 감사를 올린다.

특히 이날까지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로 원자력 시장은 이미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국내도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과 신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엄청난 변화의 전주곡이 이미 울려 퍼지고 있다.

별써 대대적인 원전 건설 계획 소식이 흘러나오는 것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원자력 메가 트렌드 속에서 작년 우리 회사는 장기 도약을 위한 '비전 2020'을 완성하여

착실히 전진하고 있고, 캐나다 우라늄광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약을 한전, 한수원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서 위용을 떨치는 일류 회사를 이룩하기 위해 새해에도 다음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비상한 노력 집중

새 정부의 성격도 그렇지만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확립이 없이는 일류 회사가 될 수 없다.

금년은 특히 예산 운영에 있어, 기존의 제조 원가에 일정액의 이익을 더해 받아오던 Bottomup 방식에서 원가와 무관하게 고객이 Topdown으로 정해주면 납품 회사가 그것에 맞추는 것이 정답이라는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키우고 그에 맞게 경영 효율화를 꾀하

여 나가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관행과 운영 절차는 새롭게 바꾸어 예산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예정이다.

토요다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1/10밖에 되지 않는 중국의 인건비와도 경쟁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KNF Optimization' 을 만들어 최고의 경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력 활용도 국제 기준에 맞추어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열정과 창조의 기업 문화 육성

우리 회사는 작년에 '비전 2020'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몸통만 있지 손발이 없다. 손발은 우리 직원 모두가 되어 어떤 도전은 정면 돌파로, 또 어떤 역풍은

전략을 가슴에 품고 옆드려 때를 기다릴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열정이 없는 천재보다 열정이 있는 범재가 낫다고.

능력의 많고 적음은 언뜻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상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도전할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이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에 중독되고 일에 대한 열정을 활화산처럼 뿜어낼 것이다.

이 열정과 창조,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회사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기업 문화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해외 시장 지배 역량 배양

그 동안 우리 회사는 국내 시장의 보호 속에 착실하게 국제 경쟁력을 키워왔다.

그리고 '비전 2020' 선포를 계기로 세계 일류 기업을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부터는 해외가 우리의 무대이다. 아니, 우리의 운명이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기 위해서는 그 무대에 걸 맞는 역량이 필수적이



한원원자력연료(주)는 새로운 CI 선포와 더불어, 지난 2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KNFC를 가슴에 묻고 KNF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비전 2020'을 향해 우리의 새로운 심볼인 '에너지 물결(Energy Wave)' 처럼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KNF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며 KNF가 꿈꾸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다. 여기에서 개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사고 방식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CI 선포와 더불어, 지난 2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KNFC를 가슴에 묻고 KNF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

이다. '비전 2020'을 향해 우리의 새로운 심볼인 '에너지 물결(Energy Wave)' 처럼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KNF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며 우리가 꿈꾸는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것이다. ☺